

기억속의 이주공간 – 滿洲國 河東마을 研究

남영주*
Opearl@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4. 재배치로의 推動과 보상의 공간 |
| 2. 식민공간의 재현 | 5. 맺음말 |
| 3. 이주공간의 갈등 | |

主題語: 하동마을(Hadong village), 만주국(Manchu State), 토비(banditry), 이주공간(immigration place), 조선의 용군(Korean Volunteer Army)

1. 머리말

공간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해서는 보다 커다란 의미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 ‘산다는 것은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인물은 공간을 의미화하고 공간은 인물을 의미화 한다.!) 따라서 공간과 인물, 공간과 공간의 상호 작용이 있어야 그 파장의 공명은 확대될 수 있는데, 근대 동아시아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역의 하나가 만주이다. 17세기 이래 만주는 인종·문화적으로 복합 공간이다. 특히 만주국은 일제의 식민지이지만 일제에게 영토화 되지 않는 공간이며, 중국 영토에 있으나 중국은 아닌 기묘하고 이질적인 공간이다. 일본은 만주국을 ‘多民族國家’로 인식하여 이질적인 인종의 집합을 하나의 국가의 틀 속에 담아내기 위해 ‘五族協和’를 내세웠다. 이러한 혼종의 공간에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개척촌을 형성하였고, 이곳에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개척촌은 조선인의 집주와 중국인의 이산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공간 즉, 조선인들만의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만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 특히 이주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구체적인 실상을 통해 만주국 조선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만주국 시대를 살았던 조선인들에 대한 구술 작업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2) 구술사는 기본적으로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 장석주(2006)『장소의 탄생』작가정신, p.28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억은 개인의 것을 넘어 집합기억이며 그것에 대한 연구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이다.³⁾ 나탕 바슈텔(Nathan Wachtel)은 집합기억과 역사적 기억의 차이에 대해, “역사적 기억이 역사가들의 단선적이고 한 목소리를 가진 역사서술이라면 집합기억은 복수적 성격과 여러 목소리를 가진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역사가의 책무는 “절대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재현으로서의 기억, 기억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 그리고 상호 간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 이제 기억에 기반을 둔 기록 자료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간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났던 민중들의 영역에까지 관심을 두게 하여 역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일조하였다.

만주국 하에서 조선인들의 기억 자료들은 이주민의 삶의 궤적을 통해 이주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술된 자료들의 경우 구술자들이 만주국에서 생활할 때의 나이가 대부분 10대 이하였다. 그 결과 만주국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매우 단순하며 많은 부분에서 단절이 있다. 이 중에서도 만주국시기 이주공간에서 일어난 조선인들의 삶을 기술한 강관룡의 회상록 「고향 떠나 50년」은 기억의 단절이 보이지 않아 주목할 만하다.⁵⁾ 이에 본고는 강관룡의 회상록 「고향 떠나 50년」을 통해 조선인들만 모여 사는 공간, 즉 타자의 공간인 하동마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하동마을이 이주공간으로서 지니는 의미에 대한 연구로서, 만주국의 조선인 통치의 일면과 조선인의 삶의 모습 및 정체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만주국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첫째, 정관룡 일가가 정착한 하동마을이 지닌 공간의 의미를 마을의 구조, 운영(통치원리)과 관련지어 논한다. 둘째, 하동마을에서 일어났던 민족 간의 교류와 갈등, 이것이 표출되고 저항하는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하동마을 조선인들이 이 공간의 지배질서를 교란하여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모습에 대해 살펴본다.

지금까지 이주공간에 관한 연구는 중국 동북지방의 일제 침략에 대한 연구⁶⁾와 영구와

2) Paul Thompson(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23, 폴 톰슨은 구술사가 “민초들 주변에서 세워지는 역사”라고 하였다.

3)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pp.48-49; 윤택림 편역(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p.17

4) 윤택림 편역(2010) 앞의 책, p.17

5) 본 회상록은 정관룡(1931-2001)이 잡지 『장백산』(중국, 서우얼출판사)에 1990년 2기-1991년 5기까지 「고향 떠나 50년」(이하 회상록)이라는 제목으로 10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다.(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정관룡(1997) 『고향 떠나 50년』 민족출판사) 본 고에서는 『장백산』 1990년 2, 3기에 연재된 1, 2회분을 분석하였다. 본 회상록은 만주로의 이주 이전과 이주과정에 대한 기억이 매우 상세한데, 이는 주로 부친과 모친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본 회상록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정관룡 일가의 만주 이주과정에 대해 분석한 송현호(2009) 「일제 강점기 만주 이주의 세 가지 풍경-『고향 떠나 50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8이 있다.

6) 金靜美(1992) 『中國東北部における抗日朝鮮・中國民衆史序説』 現代企劃室; 손춘일(2001) 『해방전 동북

삼원포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농촌의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가 있다.⁷⁾ 하동마을과 관련해서는 안전농촌이 설치된 배경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다.⁸⁾ 이들 연구는 대부분 일본의문성문서 등 당시 일제가 생산한 문건을 기반으로 연구된 것으로서 안전농촌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당시 그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공간을 이해하려는 본고는 민중의 삶과 공간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정판룡의 회상록에도 기억의 공백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다른 구술 사료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최근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만주국 시기 친일 행위 및 친일인사들에 대한 기억을 구술한 자료와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만주국 시기 조선인 사회에 대해 구술한 사료가 있다.⁹⁾ 그리고 해방 전 만주에 거주했다가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사망하여 계층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귀환자 3명을 찾아 구술한 사료가 있다.¹⁰⁾ 또한 만주국 시기 조선인들의 생활사 전반을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만든 구술 사료집이 있다.¹¹⁾ 모두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기억들의 공백을 메우는 보충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식민공간의 재현

하동마을은 일제가 ‘만주사변’의 충격으로 인한 조선인 사회의 동요를 막고, 조선인들을 통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치를 전개하기 위해 건설되었다.¹²⁾ 일제는 안전농촌이 단순히

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길림인민출판사, 윤희탁(1995)『만주국 연구-치안숙정을 중심으로-』일조각, 현은주(2000)『1930년대 재만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제의 통제정책 연구-안전농촌과 대둔부락을 중심으로』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주용(2006)「만주 안전농촌 연구-연구와 삼원포를 중심으로-」『한국근현대사연구』36, 한국근현대사학회

8) 김주용(2009)「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白山學報』84

9) 강대민 외(2013)『기억속의 만주국-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 I, II』景仁文化社, 중국조선족 청년학회 수집·정리(1992)『중국조선족 이민실록』연변인민출판사

10) 한석정 외(2009)『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동북아역사재단, pp.153-160, ‘만주 귀환자 3인에 대한 면접요약’이 수록되어 있다. 만주 귀환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만주에 대한 기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70대 2명은 해방 당시 각 10세와 14세로서, 이들에게 만주 거주보다는 해방 뒤 피란, 남하의 경험이 거의 첫 본질적인 기억이었다. 80대 여성은 기억이 끊기는 등 만주 시절의 회고가 쉽지 않았다.

11) 김도형 엮음(2009)『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I-IV, 선인

12) 김주용(2009) 앞의 논문 pp.285-287 참조, 하동 ‘안전농장’은 하동촌, 하동농장으로 불렸다.

피난민의 구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나온 정책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안전농촌은 조선인에 대한 즉흥적인 ‘구제’가 아닌 ‘이등공민’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¹³⁾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된 하동마을은 만주국 시기를 산 조선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아래 기사는 중국 길림성 거주 조선족 원로(1928년 생)의 구술이다.

하나는 집단이민 하나는 집합이민 하나는 분산이민 세 가지를 놓는다. 집단이민은 집단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니깐 돈 들죠. 집합이민은 어떡하는가. 관리든가 뭐인가 해가지고 집합시켜서 들어오는 사람들. 분산이민은 개인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산이민도 절대 들어와서는 집단부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네 치안이 아주 온전한 곳에 들어갑니다. 통제는 틀림없으니깐. …… 9·18 월 적에 전 동북에 조선사람 몇 명인가, 63만입니다. 그건 여기 호구에 일본 놈들이 조사한 것인데 유동인구가 많죠. 유동인구라 하면 한 100만은 될 겁니다. 그리구 1943년도에 얼마 되었고 하나까 190만입니다. …… 지금도 그래 남아있는 흑룡강 하동농장이나 그게 그래 남아 있는 쥘니다.¹⁴⁾

위와 같이 하동농장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안전농촌이다. 조선인들은 집단이민, 집합이민, 분산이민의 방법으로 만주로 이주한 후 모두 집단부락인 안전농촌에 정착하였다. 안전농촌에 이주한 조선인은 1943년에 이르자 190만 여명 정도로 만주사변 때와 비교해 볼 때 3배나 증가했다. 이 현상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제가 만주를 ‘극락왕토’로 선전한 효과이기도 했다.¹⁵⁾

식민지 조선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정관룡 一家도 만주로 향했다.¹⁶⁾ 1939년 정씨 일가는 봉천에서 북행 열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한 후 목단강으로 가는 기차로 주하역에 도착한 후 약 20리가량 떨어진 하동마을에 이르렀다. 이들은 만주에서 알게 된 송교장의 알선으로 만척의¹⁷⁾ 논을 얻어 정착할 수 있었는데, 정씨 일가의 기억에는 하동농장의 구조가 생생하게 남아 있다.

13) 김주용(2009) 앞의 논문 p.296

14) 강대민 외(2013) 앞의 책『박○○가족』, pp.31-38

15) 『在滿朝鮮人通信』3, 1936년 5월 「재만조선인안전농촌순회기 2」, p.10; 『在滿朝鮮人通信』2, 1936년 4월 「재만조선인안전농촌순회기1」, p.5

16) 송현호(2009)의 논문에는 정씨 일가가 만주로 이주하는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고향인 담양에서 외삼촌이 사는 제주도를 거쳐 만주에 도착한 후 영구농장을 거쳐 하동농장에 정착하였다.

17) 정씨 일가가 기억하고 있는 만척은 1936년 만주국 칙령에 의해 조선 영세농민들의 만주이민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회사인 鮮滿拓殖株式會社이다. 이 회사는 일제 침략정책의 첩병으로 1941년 종래 일본인 농업이민을 취급하던 滿拓公社로 매수·통합되었다.(정안기(2011)「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鮮滿拓殖(주)」『동북아역사논총』31권, 참조)

만척에서는 이곳에 이주해온 조선농민들을 30~40호를 단위로 마을을 세우고 계(槲)를 묶었다. 우리가 하동에 갔을 때만해도 이러한 계가 20여개나 되었다. 마을 이름도 순서에 따라 1계, 2계라고 불렀다. 서쪽 첫 마을을 1계라고 하고 동쪽 끝마을을 22계라고 하였다. 1계에서 22계까지의 거리는 수십리가 되었는데, 중간 위치에 있는 11계에 촌공소와 만척의 파출기구인 흥농회가 있었다. 그러나 11계가 있는 곳이 하동촌의 중심지이다. 이곳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하동소학교도 여기에 있었다. 40년도부터 계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마을마다 계멋대로 이름을 달게 하고 촌아래 튼, 촌 아래 패를 두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습관적으로 “몇 계에 살았다”고 해야 이해를 할 정도로, 계가 보편적이다.¹⁸⁾

위 사료와 같이 하동마을은 槲로 구성되었는데, 마을이 형성될 당시 ‘槲리는 단위로 촌락이 명명되었기 때문이다. 하동마을의 건립과정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¹⁹⁾ 각 계마다 책임자를 두고 이들이 조선인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農務契聯合會가 설립되어 각 계를 지도하면서 마을을 운영하였다. 농무계는 표면상 군중적 생산조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연합회 산하 각 계에는 계장을 두었다. 하동 농무계연합회 회장이 각 계 계장을 지도했으며, 계장은 계 아래 튼장을 지도했다. 회장과 계장은 모두 친일파로서 일본인을 위해 직권을 행사하였다.²⁰⁾ 이러한 통치체계는 일제가 만주에서 활용했던 ‘以韓制韓’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관공서인 촌공서도 설치되었다. 일제는 안전농촌을 설치하면서 통치와 관리를 위한 기구들을 설치했는데, 하동에는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하동영사분서, 하동분주소, 하동분주소 상무자위단, 하동권업주식회사, 하동촌공서, 하동협화청년단 등이 배치되었다. 이 통치·관리기구에는 일본인 18명, 조선인 180명, 중국인 7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역시 친일파였다.²¹⁾ 이처럼 안전농촌은 또 다른 형태의 행정기구였다. 정씨 일가는 파출기구인 흥농회도 기억하였다. 아래는 하동마을 조선인들의 생활상에 관한 것인데, 흥농회의 기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차차 이주민이 증가되고 또 흥농회에서 정경세작을 제창하면서 봄에 논갈이도 하고 논두렁도 수리했으며 여름에는 한두벌 기움도 매였다. 그러나 벼모는 내지 않았다. 비록 단위 면적의 산량은 조선 우리 고향보다 낮았지만 경지면적이 하도 많아 수확량이 많았다. 추수가 끝나면 흥농회 관리들이 파리떼처럼 물려와 농민들에게 출하를 재촉하였다. 땅은 ‘만척’의 땅이며 또 물까지도 ‘만척’의 물을 썼으니 대부분의 수확물을 ‘만척’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²²⁾

18) 정판룡 회상록, 1990-2, p.122

19) 김주용(2009) 앞의 논문, p.302(상지시조선민족사『하동농장 건립과정』, p.34, 재인용)

20) 김주용(2009) 앞의 논문, p.309(『河東鄉北興村』(2005), p.25, 재인용)

21) 김주용(2009)「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 p.302

22) 정판룡, 회상록, 1990-2, p.123

위 사료와 같이 하동마을 조선인들은 흥농회에 의해 수탈당했다. 치안유지가 주 업무인 흥농회는 하동마을의 경작에서부터 출하까지 관리했다. 특히 1937년 이후부터 조선인들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강탈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는 ‘이등공민’의 안정적 지위와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농촌을 설치했다고 선전했지만, 이곳에서 조선인들의 삶은 식민지 조선에서 동척에 의해 수탈당했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조선인을 위한 교육도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정관룡은 1939년 하동소학교에 입학하였기에 당시의 정황을 아래 사료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였다.

학교에는 한때는 그래도 얼마간의 조선어시간이 있었으나 소위 만주국의 ‘신학제’가 실시되면서 조선어는 취소되고 일본어와 중국어만 배웠었다. 조선인은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 중국어는 ‘만어’라 하여 다음 자리에 놓았다. 그러나 조선인은 일본신민이며 만주국민인 이중성을 띤 인간이지만 오직 조선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마다 학생들은 학교운동장에 모여 ‘황궁요배’와 ‘제궁요배’를 하였는데, 황궁요배란 일본 천황에게 아침인사를 하는 것으로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고, 제궁요배란 만주국 황제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서쪽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다.²³⁾

정관룡이 기억하고 있는 河東小學校는 河東優級學校이다. 1933년 하동농장이 설치된 이후 조선총독부의 신청으로 일본영사관의 허가를 거쳐 하동보통학교가 설립되었는데,²⁴⁾ 1937년 만주국에서 반포한 ‘新學制’의 영향을 받아 학교의 명칭이 珠河縣 公立國民優級學校로 개칭되었다. 이 때부터 하동마을에서도 일본화 된 만주국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²⁵⁾ 신학제는 정신교육에 주력하고 실업교육을 중시했으며, 일본어를 국어로 정하여 각 민족의 공용어로 삼게 했다. 이러한 일본화 된 만주국 교육은 조선인을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만주국의 국민’으로 양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新學制’로 인해 만주국 교육은 철저히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체계에 속박되었다. 또한 하동마을에서는 일제의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개명이 실시되기도 했다.²⁶⁾ 일제는 창씨개명을 통해 일본식의 씨명을 조선인에게 붙임으로서 천황 중심의 가정을 건설하고자 했는데,²⁷⁾ 이러한 정책은 내선일체 즉 동화정책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이 조선인들은 조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인 하동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했

23) 정관룡, 회상록, 1990-2, p.124

24) 김주용(2009) 앞의 논문, p.307(한독수『하동조선족 60년 변천실기』, p.104, 재인용)

25) 朴今海(2005)『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東方學知』130, pp.258-259

26) 정관룡, 회상록, 1990-2, p.124

27) 保坂祐二(2005)『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 分析-朝鮮과 滿洲, 台灣을 中心으로』J&C, pp.187-196

다. 그러나 하동마을 조선인들은 식민지 조선과 유사하게 수탈과 억압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만주국의 국민’되기를 강요받았다. 하동마을의 구조와 운영체제로 볼 때 일제가 ‘파라다이스’라고 선전한 하동마을은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억압과 수탈의 공간, 즉 식민공간이 재현된 것이었다.

3. 이주공간의 갈등

앞 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일본이 개척촌을 건설함에 따라 조선인들의 집주와 중국인들의 이산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五族協和’를 내세웠던 혼종의 공간, 만주국에서 하동마을은 조선인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즉, ‘타자의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정씨 일가가 정착한 9계는 촌의 중심인 11계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이었다. 이 주변에는 하동마을과 같은 ‘다른 공간’들이 위치해 있었다. 보도랑 건너에는 중국인 동네가 있었고, 마을에서 얼마 안 되는 원보진이라는 곳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 개척단이 정착하였다. 그런데 하동마을은 안전농촌으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조선인들이 들어와 살았다. 1920년대 초 연해주에 살던 일부 조선인들이 전란을 피해 이곳에 정착하여 평야를 개척하고 수전을 시작하였다.²⁸⁾ 그 뒤 하동마을에는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온 중국 농민들이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만주에 이주한 초기 조선인들은 중국인 지주에게 땅을 얻어 수전을 했다. 조선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면서 조선인 사회는 인근 중국인 마을까지 범위를 넓혔다.²⁹⁾ 1930년대 중엽부터 만척은 강제로 이곳 땅을 징수하여 수전을 위주로 하는 개척농장인 하동농장을 만들었다.³⁰⁾ 원래 이곳에 살던 중국 농민들은 수전을 할 줄 모른다고 하여 산골로 내쫓고³¹⁾ 대신 조선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데려다가 마의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수전을 하게 했다.

28) 김주용(2009) 「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 p.288(한득수 『하동조선족 60년 변천실기』 pp.10-11, 재인용) 조선인들의 하동마을 이주에 관해서는 1920년대 초 요녕성 연해주에 거주하던 일부 한인들이 이곳에 평야를 개척하고 수전을 시작하였다는 설과 1921년 조선인 이씨가 南興村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하동마을이 본격적으로 개척된 것은 1927년 남흥촌 59세대의 조선인들이 거주하면서부터라고 한다.

29) 김주용(2009) 앞의 논문, p.289, 하동마을에 안전농촌이 설치되기 이전 하동에는 인혜툰·민주툰·청하툰·태성툰·중심툰 등에 140여 세대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30) 박근혜(2005) 「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 pp.293-295, 이 곳은 수전경영의 최적지이며 이미 이주한인들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구제’를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다. <표 1> 1933년 3월 珠河縣·延壽縣 한인이주현황. 참조.

31) 김주용(2009) 앞의 논문, p.301(손춘일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 p.321, 재인용)

하동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전에 대한 지식은 조선인들이 중국에 정착하는 요인이었다. 아래의 사료를 보자.

……내가 8살 나던 해인 1928년에 지금의 동경성으로 이주해왔다. …… 우리 여가촌에서는 김호구 등 대 여섯 명의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황무지를 일구고 벼농사를 지었다. 이때 하얀 이밥을 처음 먹어보는 한족들은 조선 사람들을 제일이라 하였고 쌀도 잘 꺾여주었다. 후에 우리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밀이며 콩이며 수수 같은 것도 심었다.³²⁾

위 사료는 정판룡 일가처럼 만주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일가의 구술 기록이다. 1920년대 후반까지도 중국 동북지역에는 수전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수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선인들은 수전으로 인해 중국인 지주로부터 인정받고 정착할 수 있었다.³³⁾ 이후 중국인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중국인 소작농보다는 조선인에게 소작으로 내주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중국인 소작농의 소작지는 점차 증가하는 조선인 농민에게 수전 형태로 잠식되어 갔다. 지주의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인 소작농들은 조선인의 등장으로 인해 이중의 경제적 압박에 신음하였다.³⁴⁾ 만주국이 수탈한 토지의 상당수는 중국인(일부 조선인도 포함)이 농사짓고 있던 既耕地로서, 그 면적은 만주국 기경지 총면적의 23.5%³⁵⁾에 달했다. 그 결과 일본인 개척민과 토지를 빼앗긴 중국인의 충돌로 인해 중국인이 살해당하거나 부상당하는 일³⁶⁾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만주국의 이민정책에 따른 토지 수탈은 필연적으로 일본인 및 식민당국에 대한 중국인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으로 이어졌다.³⁷⁾ 水路의 설치·灌溉排水 등 ‘물’을 둘러싸고 논농사를 하는 조선인과 밭농사를 하는 중국인 사이에 토착 중국인 농민과 새로 이주해온 조선인 농민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³⁸⁾ 정씨 일가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구술하지는 않았지만, 하동마을에서도 부근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적대시하여 이따금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³⁹⁾

32) 「조상호 가족」앞의 구술사료집(『실록』), p.177

33) 「김윤선 가족」앞의 구술사료집(『실록』), pp.89-90

34) 善生永助(1937)「朝鮮人雜居地帶の部落調査」『滿鐵調査月報』17-5호, p.146; 윤휘탁(2010)「근대 조선인의 만주농촌체험과 민족인식-조선족의 이민체험 구술사를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64, pp.297-298

35) 淺田喬二(1978)『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未來社, p.419

36) 윤휘탁(2010) 앞의 논문, p.305

37) 윤휘탁(2001)「滿洲國 農村의 社會相」『한국민족운동사연구』27, pp.223-224

38) 「民族間에 橫在한 軋轢, 根本的 解決이 必要-全滿各地鮮系生活報告(5)」『滿鮮日報』1940년 6월 12일자, 7면; 金子弘 「金融會의 精神」『滿鮮日報』1940년 7월 29일자, 1면; 「都邑計劃에 伴한 鮮系流離農村對策」『滿鮮日報』1940년 8월 5일자, 2면

39) 정판룡, 회상록, 1990-2, p.122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의 갈등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분출되었다.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다. 조선으로 돌아갈 여비는 없었고 여기에 그대로 눌러 살자니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동마을에서 가까운 일본인 개척촌 원보진에 거주했던 수백 명의 일본들은 주위 중국인들에게 쫓겨 하얼빈으로 달아났다. 이 때 중국인들과 섞여 살던 조선인들은 하동마을로 모여들었다. 뒤송송한 틈을 타 토비들이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었다.⁴⁰⁾ 토비들에 대한 두려움은 하동마을 조선인들을 더욱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정씨 일기는 토비들이 형성된 정황을 아래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

위만 때 경찰노릇을 했거나 위만군대에 있었거나 농촌에서 건달노릇을 하던 놈들이 정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본군대가 버리고 간 무기와 탄약들을 주어다가 토비대오를 조직하였다. 관내에서 비밀리에 들어온 국민당지하공작원들과 연계를 맺고 보안군의 이름으로 부단히 세력을 확대, 도처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토비들은 조선 사람을 보면 ‘얼구이즈’(두번째 일본놈이라는 뜻)라고 하면서 노략질을 하였다. 광복직후 동북지구에서 우글거리던 토비들은 대부분이 현대 무기를 갖춘 지방토비들. 하동촌 주위 산골에는 토비무리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 사문동이라는 놈이 지휘하는 토비무리는 대오가 수 천 명이나 되고 대포까지 지니고 있었다. 북만의 토비들은 일반적으로 조선 사람에게 적대시하였다. 그들은 조선 사람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불량한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 조선 사람은 대부분 빨갱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비들은 조선사람 부락을 습격할 때 중국 동네보다 더 혹독하게 노략질을 하였다.⁴¹⁾

위 사료와 같이 일제가 패망한 후 만주는 무정부상태였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중국인들 중에는 일본이 버리고 간 무기로 무장한 무리들이 도처에서 약탈을 자행했다. ‘토비’로 불렸던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하게 굴었다. 정씨 일기는 하동마을 인근에 존재했던 토비들 중 ‘사문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였다. 광복 후 사문동이 이끄는 중국인 토비들은 조선인을 ‘이등 공민’이라 하여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서 부락민 전체를 전멸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⁴²⁾ 만주국 수립 후 중국인들은 수전 농사로 인해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의 터전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등 공민’이라는 민족차별은 일제가 패망한 후 조선인에 대한 반감으로 분출되었다. 그러면 일본이 내세운 ‘오족협화’라는 민족정책의 실체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만주국 시기를 산 조선인의 기억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0) 정판룡, 회상록, 1990-2, p.127

41) 정판룡, 회상록, 1990-2, p.127

42) 윤취탁(2001)『滿洲國의 ‘2等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歷史學報』169, pp.139-172

형식상에서는 오족협화라고 했지. 그 자체에서는 민족 분기를 볼 수 없지. 근데 그 아래 실천에서는 등급을 나누었던 말이야. 1등 민족, 2등 민족, 3등 민족이라 하여. 그래서 이 민족의 차별은 어느 정도 되는가 말인가, 그 때 쌀을 주는 것이 배급이라 했어, 매달 쌀을 나누어 주지, 근데 붉은 통장 흰 통장 이렇게 나누었지. 조선족을 2등 민족이라 했지, 한족을 3등이라 하고, 그래서 통장도 색깔이 달라요. 이게 구체적으로 오족협화란 이름하에서 민족을 취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오족이란 말은 그런데, 실제 집행된 방법에서는 민족 분리 정책이지, 지금도 심각해요. 지금도 옛날 사람들은 한족은 3등 민족이다. 인상이 깊어요. 그니까 쌀을 주는 게 다르잖아! 쌀이 일단 숫자, 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그 사탕가루 주는 거, 아니 주는 거 다 차이 있지.43)

위 사료와 같이 만주국이 내세운 ‘오족협화’는 허구에 불과했다. 조선인은 2등 민족, 중국인은 3등 민족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 만주국의 민족정책은 통치를 위해 민족을 분리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을 야기했다. 조선인들이 적은 곳에서는 중국인에 의해 조선인들이 맞아 죽거나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44) 조선인들은 토비들의 약탈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45) 부녀자가 겁탈당하고46) 조선족 마을이 전멸당하기도 했다.47) 이처럼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에게 반감을 표출한 데에는 조선인에게 ‘이등 공민’이라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주국 시기를 경험하고 남한으로 귀환한 원로들은 조선인들이 조선인 동네를 지나가는 중국인 아이들을 때려주기도 했다고 하였다.48) 이에 중국인 아이들은 장남감 등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를 맞을 때마다 조선인 아이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며 봐달라는 등 조선인 아이들도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인 옆에서 狐假虎威하던 일부 조선인의 삶이며 구술자가 기억하는 조선인 삶의 일면이지만, 만주국이 실시한 민족정책에 의해 조선인 스스로 ‘이등 공민’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하동마을은 철도연선에서 몇 십리 떨어진 곳이지만 깊은 산골이 아니기에 주하현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었고, 약 천호에 가까운 조선인이 集居하고 있어서 토비들은 함부로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동마을 15계가 토비들의 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49) 수십 명의 토비들이 야밤에 동네를 습격하여 사람을 죽이고 많은

43) 김도형 엮음(2009) 앞의 책, 「김재울 구술」(중국 훈춘 출생, 1928년생)

44) 「리옥녀가족」 앞의 구술사료집(『실록』) p.80

45) 「윤영순가족」 앞의 구술사료집(『실록』) p.206; 「문강호가족」 앞의 구술사료집(『실록』) p.220

46) 「정상립가족」 앞의 구술사료집(『실록』) p.146

47) 「리경흥가족」 앞의 구술사료집(『실록』) p.128

48) 한석정 외(2009) 앞의 책, pp.153-160, 「김두현 구술」(1931년생, 부산시 해운대구 거주)

49) 정판룡, 회상록, 1990-2, pp.127-128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동마을 고려인회에서도 조선인 무장자위대를 조직하여 토비들과 싸울 결심을 했다. 마을에서는 중대병력의 자위무장대를 조직하여 적은 수의 토비들을 소탕했다. 그러나 사문동 같은 큰 토비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다. 사문동 역시 천 여 호에 가까운 하동마을을 선불리 습격했다가는 큰 코 다칠 위험이 있었기에 습격은 하지 않았다. 사문동은 자신들에게 귀순하라는 통지를 하동마을에 보내기도 했다. 이 때 대치 상황을 타계 하고자 대책을 제안한 쪽은 하동마을이었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하동고려인회에서는 토비무리들과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하여 쌀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토비무장이 직접 하동촌에 들어오지 않는 전제하에서 토비들에게 수요되는 양식과 육류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⁵⁰⁾

하동마을 조선인들은 토비들에게 식량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마을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하동마을은 또 다른 식민공간이었지만 해방 후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이민정책과 마치 조선인이 ‘이등 국민’인 것처럼 대우했던 민족이간정책, 나아가 이를 기회로 일부 조선인이 중국인을 멸시하고 일본의 식민정책에 협조하여 그 앞잡이 역할을 자처했던 잘못된 형태⁵¹⁾ 등은 일본이 패망한 후 중국인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불만을 분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하동마을을 갈등과 대립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4. 재배치로의 推動과 보상의 공간

하동마을은 토비들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를 유지했지만 토비들의 계속되는 노략질은 북만주의 사회질서를 갈수록 혼란스럽게 했다. 정씨 일가의 기억을 통해 당시 혼란했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혼란한 상황에서 북만벌에 남아 있는 조선농민들은 꿈쩍 못하고 모두 죽을 것만 같았다. 듣는

50) 정판룡, 회상록, 1990-2, p.128

51) 윤취탁(2005)「侵略과 抵抗의 사이에서: 日·中 갈등의 틈바귀에 갇힌 在滿朝鮮人」『韓國史學報』제19호, pp.299-326, 참조

말에 의하면 부근 장발갑의 중국 사람들은 하동벌은 모두 자기들의 땅이니 거기서 자란 곡식도 모두 자기들것이라며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까지 하였다고 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숨만 쉬었다. 주위 산골에서 쫓겨 온 조선 사람들이 하동으로 밀려오는 바람에 어느 집이나 두세 식구가 함께 살았다. 매년 농사는 지을 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부림소까지 잡아먹는 사람까지 있었다.⁵²⁾

위 사료와 같이 하동마을의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중국인들은 이 공간을 다시 찾으려 했다.⁵³⁾ 반면 토비들에게 쫓긴 많은 조선인들은 하동마을로 피난 와 있었다. 이러한 대치 상황으로 인해 하동마을에는 시시각각 불안이 밀려왔다. 토비로 인한 피해는 통계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 패망한 직후 국민당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만 중국인에 의해 176명의 조선인이 사망했고, 1,866명이 부상당했으며, 3,468명이 구금당했고 320명이 강간당했다. 1947년에는 8,468명이 체포되었으며 2,042명이 맞아 죽거나 부상당했다. 국민당군 점령지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만주 전체 조선인 인구의 1/6에 불과했고, 피해가 많았던 산간벽지에서의 피해 사례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인으로부터 인적 피해를 당한 조선인의 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⁵⁴⁾

당시 조선인들은 토비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북만에 들어온 소련군에게 의지하기도 했다. 아래는 토비들의 피해로 인해 소련군에게 도움을 받은 조선인의 기억이다.

토비들은 조선사람만 보면 눈을 부라리며 못살게 굴었다. 토비들이 들어온후부터 조선사람은 편안한 날이 없었다. 토비들의 등쌀에 못이겨 마을의 많은 조선사람들이 산을 넘어 피난을 떠났다. 나도 식솔을 데리고 그 속에 끼었다.…… 다행히 쏘련군대들이 피난민들을 건너가게 해서 자기네 군영에다 림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것도 주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군영안에는 피난온 조선사람이 3천명은 실히 되었다.⁵⁵⁾

위 사료와 같이 광복 후 토비들이 조선인을 습격한 사건은 빈발하였고 그들이 조선인을

52) 정판룡, 회상록, 1990-2, pp.128-129

53) 하동마을은 농사짓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在滿朝鮮人通信』3, 1936년 5월 「제만조선인안전농촌순회기 2」 p.10, 「하동 농장 탐방기」를 정리하면, ‘이 농촌은 빈강성 珠河縣 제1구 장발향, 동안향과 延壽縣 제5구 순인향에 걸쳐 있다. …… 무상기간이 겨우 140일 내외인 이유로 그 대신 농경기간은 비교적 기온이 높고 또 한발기인 6월 상순경에도 雨量이 풍부하여 수도작에는 하동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만에서는 수전경영지로 최적지가 되어 있다.’

54) 廉仁鎬(1994) 「朝鮮義勇軍 研究-民族運動을 中心으로」 國民大學校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pp.203-204

55) 「허학선가족」 앞의 구술자료집(『실록』), pp.121-123

무차별로 살해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려움을 느낀 조선인들은 소련 군영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피난민이 3천명에 이를 정도로 광복 직후 만주사회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마녀사냥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 결과 토비들에 의한 조선인들의 공포는 소련군에게 의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하동마을에서도 토비들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을 때 소련군이 마을에 들어왔다. 정씨 일가는 소련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래 기사를 보도록 하자.

이 때 주하에 주둔하던 소련군 사령부에서 과거에 일본에 바치던 출하임무를 점령군인 소련군에게 바쳐야 한다는 지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따금 소련병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에서 내려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소련군대가 온다는 말만 들으면 동네 아낙네들은 기절을 하면서 논밭에 나가 숨었다. 소련병사들은 여자만 보면 겁탈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련 병사에게 겁탈당한 사람은 더러 있는 것 같다. 탈곡이 끝난 뒤 출하임무로 거둔 벼들을 우차에 싣고 현에 나가 소련군에게 바쳤다. 바친 벼들은 곧 소련에 수송되었다. 소련군 사령부에서는 홍군표라 하여 자기들이 찍은 붉은색 화폐를 농민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 홍군표는 이듬해 소련군대가 동북을 철거하면서 불과 1년도 쓰지 못하고 폐지되고 말았다.⁵⁶⁾

위 사료와 같이 일본이 패망한 후 하동마을의 지배자는 소련군이였다. 그들은 일본을 대신하여 벼를 거두어들였다. 비록 공출의 대가로 ‘홍군표’를 지급하였지만 또 다른 수탈자들이었다. 게다가 부녀자들까지 겁탈하는 등 마을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때 북만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45년 12월 하동마을에서 멀지않은 연수현에 조선의용군이 들어왔다. 아래 사료를 통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용군이라니, 참말 조선 사람의 군대란 말이요?” 마을사람들은 우리 조선사람도 자기의 군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일본군대, 중국군대, 소련군대 등 여러 군대가 있었지만 중국 땅에 조선군대가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저께 연수현 가신자에서 온 사람이 말하는데 글썽 그곳에 조선의용군이라는 하는 조선군대가 왔다고. 노래도 조선말로 하고 구령도 조선말로 하며 또 거기에는 여자군대까지 있더라고요.” “조선군대가 하동에도 왔으며 얼마나 좋을가?”⁵⁷⁾

위 사료와 같이 토비들의 포위 속에서 조심조심 살아오던 하동마을 조선인들은 조선의용군이 어떤 군대인지도 모르고 조선 군대이면 조선인을 보호해주리라 여기고 그 군대가 하동마을

56) 정판룡, 회상록, 1990-2, p.129

57) 정판룡, 회상록, 1990-3, p.89

에 진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조선의용군은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무한에서 창설되었는데, 중국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국독립군 군대이다. 조선의용군은 창립선언에서 한중공동으로 항일전선을 결성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데 전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⁵⁸⁾ 조선의용군은 일본군과 정규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가 아닌 정치선전공작대의 성격이 짙었다.⁵⁹⁾ 일본이 투항하자 조선의용군은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여 주로 조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토비를 숙청하고 군대를 확충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1946년 1월 조선의용군 제3지대의 일부 대오가 하동마을에 왔는데, 정씨 일가는 그 때의 감격을 아래와 같이 드러내었다.

회색팔로군 군복을 입고 일본 38식 보총을 어깨에 멘 조선의용군대렬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 이제는 살았구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가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였다.⁶⁰⁾

위 사료와 같이 조선인들은 조선의용대를 자신들을 보호해 줄 조선군대로 인식하였다. 조선인들은 하동마을의 새로운 보호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일제가 패망한 후 토비와 소련군으로부터 극심한 수탈을 당한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은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의용군이 진주하면서 하동마을에는 전례 없는 사회대변혁이 일어났다. 고려인회가 해산되고 민주연맹이 건립되었다. 하동소학이 하동조선소학으로 개칭되고 중학반이 설치되었다. 학교에서는 조선어, 중국어, 조선역사, 조선지리 등을 조선말로 배우기 시작했고, 음악시간에는 조선의용군 선전대 여선전대원이 새로운 혁명가요를 가르치기도 하였다.⁶¹⁾ 또한 오래 동안 일본군대나 소련군대만을 보았지 조선군대라고는 보지 못하고, 토비들에게 혹독한 시달림을 받은 조선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선의용군에 가담하고자 했다. 정씨 일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의 둘째형은 1946년초에 조선의용군이 하동에 갓 들어왔을 때 벌써 입대하였으며 큰 형님은 일본군대에서 돌아온 뒤 1945년 겨울 할빈으로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조선의용군 제 3지대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인차 의용군에서 꾸리는 교도대 훈련반에 참가하였다. 두 형님이 모두 의용군에 참가하였으며 시집간 누님들의 남편, 시동생들도 모두 군대에 나갔다. 나도 그때 군대에 나가겠다고 여러번 반주임선생님을 찾았으나 그때 나이가 겨우 열다섯살도 되나마니하여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그해 의용군에 참가한 청년은 하동촌만해도 몇백명이 되었다. 우리 9계만 해도

58) 김주용(2007)「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중심으로-」『東國史學』43, pp.271-272

59) 김광재(2006)「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비교」『史學研究』84, pp.212-213

60) 정판룡, 회상록, 1990-3, p.90

61) 정판룡, 회상록, 1990-3, pp.90-91

40여호밖에 안되는 작은 마을에서 십여명의 청년들이 참군을 했는데 그중에는 여자도 몇이 있었다. 여자들은 주로 의용군선전대거나 위생대로 갔는데 단발머리를 하고 팔로군군복을 입은 것이 처녀들에게 얼마나 영준하게 보였는지 어떤 계집애든지 커서는 모두 선전대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⁶²⁾

위 사료와 같이 정씨 일가들 뿐 아니라 하동마을에서는 상당수의 조선청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조선의용군에 지원할 정도로 열기는 대단했다. 일본의 억압과 강탈, 뒤이은 소련군과 토비의 수탈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들이 받은 엄청난 울분과 설움은 조선청년들을 조선의용군에 입대하게 했다. 정씨 일가의 기억에 의하면 이때 조선의용군에 있던 조선인 혁명 간부들은 주로 조선족들이 집거하는 농촌에 내려갔다. 이 때 하동에도 간부들이 내려와 정식으로 인민정부를 세우고 농회, 부녀회, 아동단 등 군중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점차 하동마을은 안정되고 인민정권이 공고히 되면서 과거 조선인들을 억압하던 친일분자와 토비두목에 대한 공개적인 군중심판이 시작되었다. 1947년 봄부터는 현에서 파견한 토지개혁 공작대들이 하동 각 마을에 진주하였다. 토지개혁 공작대는 마을에 들어온 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회를 조직하여 토지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해 겨울 마을에서는 토지개혁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였는데, 정씨 일가도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⁶³⁾ 이처럼 생존공간을 지키려는 조선인들의 노력은 이 공간의 권력을 재배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씨 일가처럼 토지개혁에 의해 토지를 분배받아 중국에 정착하게 된 여러 사례가 확인할 수 있다.

- ① 46년도에 토비(국민당군)를 치려고 나는 군대에 나가 3년동안 근무하다가 아성에 배치받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다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다.⁶⁴⁾
- ② 이듬해인 1946년에 중국인민해방군에 참가했고 ... 지금은 2등 영예군인이라고 국가에서 분배해준 주택에서 걱정없이 만년을 보내고 있지만, 옛일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한다.⁶⁵⁾
- ③ 광복후엔 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토비 숙청에두 참가했구 영광스럽게 입당을 하구 주 당학교에두 다녔으며 촌 당총지부 서기사업이랑 하면서 보람있게 살구 복하게 살았다.⁶⁶⁾
- ④ 토지개혁 후 우리는 논을 부여받았고 생활이 날따라 펴이였다.⁶⁷⁾

62) 정관룡, 회상록, 1990-3, p.91
 63) 정관룡, 회상록, 1990-3, pp.93-94
 64) 「배중덕가족」 앞의 구술사료(『실록』), p.190
 65) 「한용친가족」 앞의 구술사료(『실록』), pp.210-211
 66) 「김진가족」 앞의 구술사료(『실록』), p.44
 67) 「윤영순가족」 앞의 구술사료(『실록』), p.207

토비나 국민당군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약탈·강간·살인 등을 당하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조선으로 다시 귀환하거나 공산당 군대에 입대해서 싸우는 것이었다. 다행히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에 의해 조선인에게도 토지가 분배되자, 많은 수의 조선인들은 공산당을 위해 싸웠고 그 대가로 ‘민주국’ 시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음을 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동마을은 조선인들에게 ‘보상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만주는 일본인, 조선인, 러시아인 등 수많은 민족이 진출한 땅으로 대부분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 곳으로 왔다. 그들은 그 곳에서 자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게 되었는데, 조선인들은 조선족 또는 한족(중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5. 맺음말

만주는 러시아인과 이스라엘, 폴란드 등의 유럽인, 일본인과 조선인 등 수많은 국가와 민족이 진출한 땅이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영토 없는 또는 국가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인들 역시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찾아 하동마을로 몰려들었다.

본 연구는 만주국 개척농촌 하동마을 조선인들의 삶을 기억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마을이 이주공간으로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삼아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하동마을이 지닌 공간의 의미를 마을의 구조와 통치원리를 통해 파악하였다. 하동마을은 일제가 만주사변 이후 조선인 사회의 동요를 막고 효율적인 통치를 전개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농촌이다. 일제가 만주를 극락왕토로 선전하자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稷로 이루어진 하동마을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행정기구였다. 일제는 친일파를 통해 조선인들을 지배하는 ‘以韓制韓’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들의 삶은 식민지 조선에서 동척에 의해 수탈당하던 삶과 다를 바 없는 조건이었다. 또한 일제가 조선인들을 ‘이등 공민’으로 선전했지만 이는 허구에 불과했다.

한편 1937년 만주국에서 반포한 ‘新學制’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화 된 만주국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 교육도 만주국 학제에 편입되어 재만 조선인 교육의 정통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육연환과 교육내용이 일본인보다 저수준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조선인들을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만주국의 국민’으로 양성되었다. 조선인들은 척박한 식민지 조선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인 하동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하동마을은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억압과 수탈의 공간, 즉 식민공간의 재현이었다.

둘째, 하동마을에서 일어났던 민족 간의 교류와 갈등이 표출되고 저항하는 양상을 통해 공간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척촌 건설로 인해 조선인들의 집주와 중국인들의 이산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조선인들에게 내어준 것이기에,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갈등은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갈등의 양상은 개척촌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중국인 지주에게 땅을 얻어 수전을 하며 중국인 마을까지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들의 소작지가 조선인 농민에게 잠식되어 갔던 것이다. 중국인 소작농은 지주의 착취와 압박, 그리고 조선인의 등장으로 인해 이중의 경제적 압박에 신음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 민족의 갈등은 만주국이 내세운 ‘오족협화’라는 민족정책의 허구성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인을 2등, 한족을 3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하였다. 조선인에게 ‘이등 공민’이라는 우월감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동마을에서도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토비들의 조선인 마을 습격으로 분출되었다. 조선인들은 하동마을이 외부인에 의해 존폐의 위협을 받게 되자 스스로 무장하여 마을을 지켜냈다. 이처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 다른 식민공간인 하동마을은 조선인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였다.

셋째, 하동마을 조선인들이 이 공간의 지배질서를 교란하여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모습을 통해 공간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하동마을 조선인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먼저 토비들과의 협상을 통해 마을의 평화를 유지했다. 수탈이 심해지자 북만주에 들어온 소련군에게 의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군들은 일제를 대신한 공출을 거두어가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수탈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동마을에 조선의용군이 들어왔다. 조선인들은 조선의용대를 자신을 보호해줄 조선군대로 인식하고 여기에 가담하였다. 조선의용군이 하동마을에 들어옴으로서 학교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대변혁이 일어났고,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재분배하였는데 이 때 정씨 일가도 땅을 분배받았다. 정씨 일가를 비롯한 조선인들이 하동마을 보존하기 위해 보인 노력은 이 공간의 권력을 재배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정씨 일가를 비롯한 조선인들은 조선족 또는 중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參考文獻】

- 『滿鮮日報』아시아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
 『在滿朝鮮人通信』(1936)興亞協會
 강대민 외(2013)『기억속의 만주국-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 I, II』景仁文化社
 김도형 역음(2009)『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I-IV, 선인
 保坂祐二(2005)『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 分析-朝鮮과 滿洲, 台灣을 中心으로』J&C, pp.187-196
 윤택림 편역(2010)『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아르케, p.17
 장석주(2006)『장소의 탄생』작가정신, p.28
 전진성(2005)『역사가 기억을 말하다』휴머니스트, pp.48-49
 정관룡(1997)『고향 떠나 50년』민족출판사
 중국조선족청년학회 수집·정리(1992)『중국조선족 이민실록』연변인민출판사
 한석정 외(2009)『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동북아역사재단, pp.153-160
 김주용(2007)「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東國史學』43, pp.271-272
 _____(2009)「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白山學報』84
 朴今海(2005)「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東方學知』130, pp.258-259
 송현호(2009)「일제 강점기 만주 이주의 세 가지 풍경-『고향 떠나 50년』을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28
 廉仁鎬(1994)「朝鮮義勇軍 研究-民族運動을 中心으로」國民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203-204
 윤휘탁(2001)「『滿洲國』 農村의 社會相」『한국민족운동사연구』27, pp.223-224
 _____(2001)「『滿洲國』의 ‘2等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歷史學報』169, pp.139-172
 _____(2005)「侵略과 抵抗의 사이에서: 日·中 갈등의 틈바귀에 갇힌 在滿朝鮮人」『韓國史學報』제19호,
 pp.299-326
 _____(2010)「근대 조선인의 만주농촌체험과 민족인식-조선족의 이민체험 구술사를 중심으로」『한국민족운
 동사연구』64, pp.297-298
 善生永助(1937)「朝鮮人雜居地帶의 部落調査」『滿鐵調査月報』17-5號, p.146
 淺田喬二(1978)『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未來社, p.419
 Paul Thompson(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23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기억속의 이주공간 — 滿洲國 河東마을 研究

본 연구는 일본이 만주국에 설치한 안전농촌인 하동마을이 이주공간으로서 내포한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이 개척한 하동마을은 마을자체가 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조선인들은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찾아 만주로 왔지만, 그들의 삶은 조선에서 동척에 의해 시달리던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일본이 조선인들을 ‘이등공민’이라고 내세운 것도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동마을 조선인 교육도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이며 만주국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식민공간이나 다를 바 없었던 하동마을은 개척촌 건설로 인해 조선인의 집주와 중국인들의 이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인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중국인 소작농들은 지주의 착취와 압박 그리고 조선인들의 등장으로 인해 이중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 더불어 ‘이등 공민’이라는 조선인들의 우월감 또한 중국인들의 분노를 살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의 갈등은 일제가 패망한 후 토비들이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하동마을 조선인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했을 뿐 아니라, 토비들과 협상을 통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였다. 또한 북만주에 들어온 소련군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맡기기도 했지만, 소련군 역시 일본을 대신해 공출을 거두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수탈자일 따름이었다.

하동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의지는 조선의용군에 가담하는 조선인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났다. 비록 조선인들이 조선의용군을 조선군대로 인식하고 가담했지만, 이는 마을을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었다. 이후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으로 인해 토지를 분배 받은 정씨 일가를 비롯한 조선인들은 하동마을에서 조선인 또는 중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동마을을 보존하려는 조선인들의 노력은 이 공간의 권력을 재배치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The immigration place in memory — the research on Hadong viliege in Manju

This research studied on the meaning that Hadong village in which Japan developed has. Hadong village Japan developed was an area that the village itself was consisted with its ow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Josun people came to Manju looking for new paradise, but their life was similar to the suffering life by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in Josun. The fact that Japan announced Josun people The second class citizen was fake, too. Not only that, the Josun people education in Hadong village was for making a subject of Japan and Manju state's nation.

In Hadong village as a colony area, Josun people immigrated in and Chinese dispersed for developing pioneer farm. this situation amplified Chinese's complaint. Chinese tenant farming financially suffered not only from landowner's exploitation and pressure but also with appearance of Josun people. more than that, Josun people's pride that they are The second class citizen also caused Chinese's anger.

The conflict between Chinese and Josun people was expressed by that banditries invade and attack Josun people's village after Japan collapsed. Josun people in Hadong village protected their village by arming themselves and negotiating with banditries. they also asked the Soviet army to protect themselves, the army took food and raped women as stripper, too.

The will to protect Hadong village is exposed by Josun people's behavior joining Korean Volunteer Army. Even though Josun people perceived Korean Volunteer Army as Josun army and joined, it is showing their will to protect their village. later on, Josun people including Jung's family who was distributed some lan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land renovation became to live in Hadong village as Josun people or Chinese people. Josun people's effort to keep Hadong village was the driving force to rearrange the power of this area.